

## 대지 위에 던져진 인간 최초의 시선

피에르 레스타니

美術評論家

이종상은 서울의 당구장이 있는 건물의 바로 윗층에, 다소 기이한 곳에 살고 있다. 그의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음은 즉각 차단되고, 그곳의 여러 방들은 아틀리에로, 창고로 그리고 종이 제작 및 판화 작업을 위한 공방으로 되어 있다.

이 조그만 세계에서 돌발적으로 엄습해 들어오는 것은 외부세계와의 엄격한 거리감을 확인하게 하는 침묵이다. 우리는 이종상의 꿈을 제조하는 공장에 와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씩 단편적으로 그의 우주적 시각에 대한 한국적 구조가 완성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예술가는 모든 기법과 한국인 그리고 서구인에 주목하는 실제적인 환상가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길고도 밀도높은 종이위에 먹을 사용하며, 또한 자신의 작품을 위해 천연광물 물감을 덧붙여 제작한다. 종이 위에서 놀라운 색채적 밀도를 만들어내는, 특별히 〈源形象〉이라 일컫는 연작의 비밀이 바로 이같은 완벽한 제작 방식의 숨겨진 안에 포함돼 있다.

이종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이미지는 부단한 형성중에 있는 최초의 지질학의 모습으로, 때때로 그것은 녹아내리는 용암의 작열하는 마그마이거나 석탄 광맥, 유황의 지형 그리고 은밀하게 드러나는 표지, 유동적이면서 암시적인 수채화, 1986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금빛 표상문자 방식으로 밑에 배어있는 검은 얼룩에 줄을 새기게 되는 線影 등을 연상시킨다.

60년대의 몇몇 작품 속에서 이종상은 암벽에 새겨진 판각화나 알타미라 혹은 라스코 동굴벽화——신비로운 동물, 전쟁, 행렬, 투우의 회화——등을 환기시키는 형상적인 장면을 엮은 회반죽의 층위에서 재현해내는 일종의 프레스코

기법에 의존하였다. 마치 대지의 태고적 기억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같은 이 모든 세계는 불타 버린 대지의 흑갈색과 황토빛이 돋보이는 미네랄 침전물의 공간위로 이동해 간다. 따라서 이종상의 상상력은 대지위의 삶과 기원에 대한 원천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지질학은 삶의 화석화된 기억을 떠맡고 있으며, 켜를 따라 그리고 층층이 그 흔적들을 축적해가고 그것으로써 역사를 결정(結晶)시켜 간다.

이종상의 야심만만한 꿈은 자신의 시선을 대지위의 최초의 인간에게 대치시키는 일이며, 공룡의 출현이나 들소의 전투에 혹은 햇빛의 강렬함에 질겁하여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자신을 투여했던 생명의 공간 위에 이와 동일한 격렬하며 매혹적인 시선을 던지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닐 암스트롱이 달 위에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으면서 자신의 주변에 던졌던 시선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69년 7월 21일, 실제로 이종상이 자신의 회화를 프레스코에서 착상하였던 동일한 시기였다.

암스트롱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목격자로서 확인시켜 주었을 따름이다. 즉 달은 이미 죽어있는 별이라는 사실을.

한편 한국의 한 예술가는 우리로 하여금 최초의 인간이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시선을 부여하기 전에 원초적인 자신의 환경 위에 부여하려 했던 시선의 총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이 시선이 점차적으로 마티에르(재질감)와 혼연일체됨에 따라 이종상의 회화는 더 추상적이고 무기적인 그리고 보다 유기적이며 은유적인 것으로 되어갔다. 그러나 이처럼 밀도있는 효과는 이제 막 형성된, 그리고 주홍의 붉은 섬

광과 구리의 황산염의 푸른 빛 긴 신이 예견하는 새된 소리의 무한함에 대한 의도적인 억압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양한 회화, 수채화, 그리고 판화를 통한 최초의 시각에 대한 유기적인 층제성 속에서 얻어지는 파노라마적인 결집력의 의미는, 처음부터 이러한 탐색을 파리의 앙포르멜이나 뉴욕의 추상표현주의 같은 서구 모더니스트의 전통적 시각에서 판단하리는 경향이 농후한 한국의 대중을 위해서 진정한 계시를 제공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종상은 자신의 야심에 대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예술은 삶의 기원과 주제에 관한 본질적이며 올바른 사고의 표현이다. 동시에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국제적인 예술가로서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불음에 일관된 답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도전에 대해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현대 서정추상의 역사 안에서의 유일한 수훈인 ‘대지 위에 던지진 인간의 최초의 시선에 대한 환상적이고 시각적인 구조화’의 문제를 자신의 회화를 통해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